

보도자료

2010. 1. 20(수)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정책홍보실 ☎ 042-869-6116

<자료문의> ☎ 융합과학단 박귀순(042-869-6572)

한국연구재단, 제2회 융합과학 워크숍 개최

- '신체와 정신' 이라는 주제로, 자연과학자와 인문학자 학문의 벽 넘어 한 자리에 -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은 『신체와 정신』이라는 주제로, '제2회 융합과학 워크숍'을 1월 22일(금) 오후 1시에 연구재단 대전 청사 연구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 융합과학 워크숍은 최근 학문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융합학문에 대한 과학적, 철학적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국연구재단이 마련한 학술 교류의 장으로, 지난해 12월 3일에는 “소통과 융합”이라는 주제로 제1회 융합과학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체와 정신”이라는 주제로, 미래학자, 의사 및 철학자가 각자의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한다.
 - 미래학자인 차원용 박사가 “미래예측 : 인간의 융합/창조”라는 주제로 천(天)·지(地)·인(人) 중에서 인간의 융합과 창조에 대해 설명한다.

○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인 함봉진 서울대 교수는 “신체와 정신의 다원적 융합”이라는 주제로, 철학자인 신상규 이화여대 교수는 “신체와 정신의 동시적·비동시적 존재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최근 영화로 제작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아바타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에 대해 강연한다. 인간의 신경계에 직접 연결된 “아바타”라는 분신 로봇을 통해 인간 자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나”란 무엇이고, “기억”과 “정신”, “신체”와 “마음”에 대해 인문학자, 자연과학자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이번 워크숍을 주최한 박찬모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올해 총 6회의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다. 이 워크숍을 통해 인문학자, 자연과학자 모두 융합과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연구자 간에 교류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2회 융합과학 워크숍 세부추진계획 1부
2. 제2회 융합과학 워크숍 포스터I 1부
3. 제2회 융합과학 워크숍 포스터II 1부
4. 제2회 융합과학 워크숍 홍보자료 1부

제2회 융합과학 워크숍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0. 1.22(금) 13:00~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1층 강당 -

I. 개 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본부, 국책연구본부, 인문사회연구본부에서는 융합 학문을 육성하기 위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융합과학단, 나노융합단, 문화융복합단을 두고 있음
- 본부별로 지원사업과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 해당 부서별로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나 부서명에 “융합”이란 공통된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부서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요구되고 있음

2. 주요 내용

- 융합학문에 대한 철학적 고찰
 - 융합학문, 융합과학, 융합기술, 복합과학, 통섭의 정의
 - 융합과학 지원 분야에 대한 연구자 이해도 증대
- 융합 학문에 대한 과학적 고찰
 - 과학사 고찰을 통한 융합 학문의 중요성
 - 융합 학문 육성을 위한 효율적 지원체제
 - 학문의 진보와 과학기술의 미래
- 융합학문 분야의 효율적 육성의 필요성 제기
 - 융합 관련 학문단별 역할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융합 관련 학문단별 중점 육성 분야 제안

- 융합 학문 분야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II. 워크숍 개최계획(안)

1. 개최 개요

- 부제 : 신체와 정신
- 개최시기 : 2010.01.22(금)
- 개최장소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1층 강당
- 참석대상 : 융합과학 분야 과제 수행자, 융합과학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과학기술부 담당관, 한국연구재단 직원 등
- 주요 내용
 - 미래학자가 말하는 천·지·인 중 인간의 융합/창조
 - 정신분석학자가 말하는 다채널을 통한 신체와 정신의 다원적 융합
 - 신체와 정신의 동시적·비동시적 존재에 대한 철학적 이해 및 탐구
 - 최근 회자되고 있는 무형적 정신과 물리적 신체의 동시적·비동시적 존재가 교차 진행되는 형태인 아바타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
- ※ “Cogito ergo sum: I think, therefore I am; or I am thinking, therefore I exist”, René Descartes
- 진행
 - 발표자 : 3명

2. 워크숍 세부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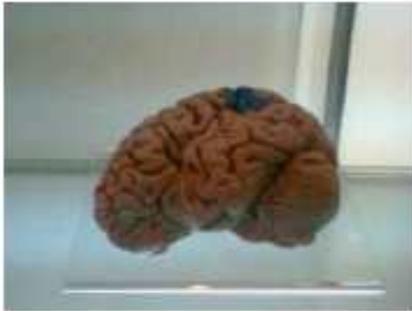
| 시간 | 내용 | 발표자(안) |
|-------------|--------------------------------|-------------------------|
| 13:00~13:10 | 개회사 | 융합과학단장 |
| 13:10~14:00 | 미래예측: 인간의 융합/창조 | 차원용 소장 (아스팩 미래기술연구소) |
| 14:00~14:50 | 신체와 정신의 다원적 융합 | 함봉진 교수(서울대) |
| 14:50~15:40 | 신체와 정신의 동시적·비동시적 존재에 대한 철학적 해석 | 신상규 교수(이화여대) |
| 15:40-15:50 | 폐회사 | 문화융복합단장 |

2014년 1월 22일



제2회 융합과학 워크샵

"Cogito Ergo Sum" René Descartes



신체와 정신

일시 : 1월 22일(금) 13:00—16:00

장소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1층 강당

=초청강연 =

아스텍 미래기술경영연구소 차원용 소장

서울대 함봉진 교수

이화여대 심상규 교수

제2회 융합과학 워크숍

- 신체와 정신 -

- 일 시 : 2010년 1월 22일(금) 13:00 ~ 16:00
- 주 최 : 한국연구재단
- 장 소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1층 강당
- 초청강연 : 차원용 소장(아스팩 미래기술연구소)
함봉진 교수(서울대)
신상규 교수(이화여대)



한국연구재단



제2회 융합과학 워크숍 - 신체와 정신-



- ◆ 일시 : 2010년 1월 22일(금) 13:00-16:00
- ◆ 장소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1층 강당
- ◆ 목적 : 미래학자가 말하는 천지인 중 인간의 융합/창조, 정신분석학자가 말하는 신체와 정신의 다원적 융합, 철학자가 말하는 신체와 정신의 동시적·비동시적 존재에 대한 철학적 이해
- ◆ 초청강연자
차원용 소장(아스팩 미래기술경영 연구소), 함봉진 교수(서울대), 신상규 교수(이화여대)

| 시간 | 내용 | 발표자(만) |
|-------------|--------------------------------|--------------------------|
| 13:00~13:10 | 개회사 | 융합과학단장 |
| 13:10~14:00 | 미래예측: 인간의 융합/창조 | 차원용 소장 (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 |
| 14:00~14:50 | 신체와 정신의 다원적 융합 | 함봉진 교수(서울대) |
| 14:50~15:40 | 신체와 정신의 동시적·비동시적 존재에 대한 철학적 이해 | 신상규 교수(이화여대) |
| 15:40~15:50 | 폐회사 | 문화융복합단장 |

"Cogito Ergo Sum: I think, therefore I am; or I am thinking, therefore I exist", René Descartes